

2. 언어지도의 목적

1) 언어에 의한 사고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1) 지도이유 (필요성)	생후 3세 이전에 소리를 귀로 듣지 못하는 것을 그대로 두면 손짓에 의한 의사소통이나 사고는 가능할지라도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나 사고는 할 수 없으며 아동기가 지나 청년기가 되어도 추상적인 사고와 논리적인 사고가 불가능하여 추상적인 사유의 세계에 살 수 없다. 따라서 청각장애아의 언어교육은 언어에 의한 사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2) 지도목적	언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때 언어에 의한 사고가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청각장애아의 언어교육은 우선적으로 언어에 의한 사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는 곧 언어를 사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고를 언어로, 언어를 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3) 문제점	청각장애아동은 자기의 생활경험 즉 한 일, 본 일, 느낀 일, 생각한 일 등의 구체적인 생활경험을 언어화하는 것에 어려워한다.	
(4) 지도방안	언어를 사고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익히게 하며, 사고를 언어로, 언어를 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언어지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5) 임상지도 사례	● 행동한 것을 언어화한다. ●	
	지도 목표	간단한 동작어의 개념을 확실히 형성하고 자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지도 내용	아동 자신의 행동을 통하여 대화에 참여한다.
	지도 방법	▶ 교사는 아동이 “앉고 서다”의 개념을 형성하게 하고 “앉아요, 서봐요”에 반응하게 하여 익숙해지면 교사와 아동이 역할을 바꾸어 실시한다. ⇒ 교 사 : “앉아보자”, “이제는 서보자” 아 동 : (교사의 지시대로 앉고 서본다.) 교 사 : (앉으면서) “선생님이 어떡하고 있지?” 아 동 : “앉아요” (서는 자세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도한다.)
	학습 자료	▶ 아동이 선호하는 강화제, 안전한 의자, “앉다, 서다”의 그림 카드
	평가	▶ 교사와 아동이 역할을 바꾸게 함으로써 흥미와 관심을 유발해 자발적인 발성을 유도한다. ▶ “앉다, 서다”의 개념을 습득했나 알아보고 아동이 자발적으로 말하는지 확인한다.

(5) 임상지도 사례	● 경험한 것을 언어화한다. ●	
	지도 목표	과거의 생활 경험 중 특정한 경험 (ex-학교에서 오늘 있었던 사건들)을 아동 자신의 적절한 언어로서 표현할 수 있다.
	지도 내용	청소시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한다.
	지도 방법	▶ 교사는 아동이 청소시간에 있었던 일을 교사와 다른 아동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사 : 영수는 아까 청소시간에 무얼 했지? 아동 : 교실바닥을 쓸고 책상을 옮겼어요. 교사 : 바닥은 무엇으로 쓸었니? 아동 : 빗자루로 쓸었어요. 쓰레받기도 사용하고... 교사 : 또 무엇을 했지? 아동 : 칠판도 깨끗이 지웠어요. 교사 : 청소를 끝내니까 기분이 좋지요? 아동 : 예, 마음이 상쾌하고 즐거워요.
	학습 자료	▶ 아동이 선호하는 강화제 (사회적 강화제가 유리함), 청소를 하고 있는 사진이나 그림카드 등
	평가	▶ 아동이 청소시간에 대한 대화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학교 생활의 상황을 찾아내어 질문한다. ▶ 교사는 정확한 발음과 상황 제시로 아동이 어느 상황이었는지 혼란스럽지 않도록 주의한다. ▶ 교사는 아동이 청소시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여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5) 임상지도 실례	● 생활한 것을 언어화한다. ●	
	지도 목표	매일 반복되는 친근한 실제의 생활을 언어로 표현함으로써 실제 생활에서의 적용과 일반화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언어에 의한 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지도 내용	교사와 함께 쿠키를 만들면서 이야기한다.
	지도 방법	▶ 교사는 쿠키를 만들 재료를 미리 준비한 뒤, 아동과 함께 쿠키를 만들면서 아동이 자발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게끔 유도한다. 교사 : 쿠키는 무엇으로 만드는지 알고 있나요? 아동 : 밀가루랑 버터요. 교사 : 또 무엇이 들어가지요? 아동 : 우유도 들어가고 초코렛도 들어가요. 교사 : 쿠키는 어디에다 구울까요? 아동 : 오븐에 넣으면 구워져요. 교사 : 그럼 이제 예쁘게 모양을 낸 쿠키를 오븐에 넣고 구운 뒤 선생님과 함께 맛있게 먹도록 해요.
	학습 자료	▶ 오븐기, 쿠키 재료인 밀가루, 우유, 버터 및 상황 그림 카드 등
	평가	▶ 아동이 쿠키에 대한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가? ▶ 쿠키를 만드는 과정을 이해하고 재료를 직접 이야기 할 수 있는가?

2) 언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1) 지도이유 (필요성)	청각장애아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언어에 의한 사고가 가능해야 할 뿐 아니라 남의 말을 알아듣고 나아가 자기의 말을 남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언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 져야 한다.	
(2) 지도목적	생활장면에서 말을 의사소통의 도구로 정확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문제점	처음으로 언어지도를 받는 청각장애아는 물건에 이름이 있다는 것조차 모를 뿐만 아니라 조음기관을 움직이는 방법도 모르며, 음성의 효용이나 음성 자체도 모르므로 커뮤니케이션이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이들에게 의사소통을 강요할 수는 없으므로, 아동 스스로 표현하게 하여야 하는데 아동의 흥미나 동기가 부족하면 교육이 점점 더 어렵게 된다.	
(4) 지도방안	의사소통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그 아동에 수준에 맞고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과제를 뽑아 교사가 하고자 하는 방향을 주시하면서 아동에게 제공하고, 언어적인 사고를 기르며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문답식의 교육을 과제로 실행한다.	
(5) 임상지도 사례	● 행동한 것을 언어화한다. ●	
	지도 목표	각기 다른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지 말할 수 있다.
	지도 내용	그림 속의 대상이 행하고 있는 움직임을 이해하고 타인에게 설명한다.
	지도 방법	▶ ① 각기 다른 상황의 사진이나 그림을 제시한다. ex)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있어요. 오빠가 TV를 보고 있어요. 아빠가 물을 마시고 있어요. ② 교사가 해당되는 상황의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며 질문을 하면 아동은 그 상황에 알맞은 답을 골라 대답한다. ex) 교사 : 엄마가 무얼 하고 계시니? 아동 : 엄마가 찌개를 끓이고 있어요. 교사 : 오빠가 무얼 하고 있어? 아동 : TV를 보고 있어요.
		▶ ① 표정과 몸짓을 보고 알아 맞추고 말하기 ex) 교사 : (몸을 움츠리며) “○○야, 지금 날씨가 어떤 것 같니?” 아동 : “몹시 추워요” 교사 : “○○야, 난로불이 따뜻할까, 안 따뜻할까?” (외투를 걸치며) 아동 : “따뜻해요”
	학습 자료	▶ 명확한 상황을 제시하는 각기 다른 상황의 사진이나 그림, 외투, 난로불 등
	평가	▶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정확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 행동을 언어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5) 임상지도 사례	● 경험한 것을 언어화한다. ●	
	지도 목표	가족과 함께 산으로 소풍을 갔던 놀이 경험을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다.
	지도 내용	자신의 나들이 경험을 타인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한다.
	지도 방법	▶ 교사는 아동이 주말에 있었던 일을 교사와 다른 아동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교사 : 지난 주말에 ○○는 부모님과 함께 소풍을 다녀 왔나요? -예. 교사 : 어디에 갔었어요? -산에 갔어요 교사 : 무엇을 타고 갔나요? -엄마랑 아빠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갔어요. 무엇이 제일 재미 있었나요? -산 정상에 올라가 김밥을 먹었던 거요. 이 다음에는 어딜 가고 싶나요? -바다요.
	학습 자료	▶ 아동이 좋아할 만한 강화제, 필기구와 노트 등
	평가	▶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일기로 표현할 때에는 있었던 사실의 시간적 나열만이 아니라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5) 임상지도 실례	● 생활한 것을 언어화한다. ●	
	지도 목표	아동이 실제로 운동회에 있었던 일들을 타인에게 자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지도 내용	운동회에 대하여 교사와 함께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지도 방법	지난 가을 운동회에 대해 교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경기에 이겼을 때의 느낌을 이야기한다. ➡ 교 사: 지난 가을 운동회에서 ○○는 백팀, 청팀 중 어느 팀이었니?? 아 동: 백팀요. 교 사: 그래? 부모님께서서는 오셨니? 아 동: 예, 우리 엄마는 항상 오는 걸요. 교 사: ○○는 달리기 몇 등을 하였니? 아 동: 2등요, 한번 넘어졌거든요. 교 사: 그럼 공책을 두 권 받았겠구나. 아 동: 예, 그런데 동생한테 한 권 줬어요. 교 사: 아, 우리 ○○는 굉장히 착한 어린이구나. 아 동: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학습 자료	➡ 가을 운동회 사진 여러 장, 아동이 선호하는 강화제
	평 가	➡ 단순히 명사와 서술어가 나열되기보다는 보다 다양한 아동의 감정을 형용사나 부사를 많이 사용해 표현할 수 있도록 교사가 지도해야한다.

언어의 특징 중 2)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에 포함된다.	
	· 커뮤니케이션 ⇒ 자기가 살고 있는 언어 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정보교환을 위한 화자의 목적 있는 행동 (타인의 주의를 끌기 위해 어깨를 두드리는 것도 포함) · 만약 언어가 개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이용 ⇒ 그들 간 언어적 메시지를 교환 중 <u>그러나 모든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 언어만은 아니다.</u> · 화자와 청자 사이의 실제 대화에서는 언어 · 말 · 커뮤니케이션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커뮤니케이션 ⇒ 언어로 정보를 교환하는 틀 말 ⇒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실현(수단)

《보충 내용》 2)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에 포함된다.	
의사소통	· 사회적인 행위로서 특히 개인간의 의사소통은 <u>운동행위와 언어의 상호적인 이해 체계를 필요로 한다.</u> ⇒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되는 관습적인 상징체계이며, 상징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이해되는 사고, 느낌, 사건을 나타내거나 표상하는 신호(낱말, 몸짓, 사인, 다른 동작 반응)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자	·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상징을 조직하기 위한 규칙인 <u>낱말 체계</u>와 환경에서 아동이 사물 또는 사람과 상호 작용한 결과로 얻어지는 <u>의미의 발달 및 낱말 순서와 그것에 관련되는 문법인 통사의 발달</u> 등을 가짐으로써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자』가 되는 것이다.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 체계나 도구의 필요성	· 우리는 언어사용이 다소 있거나 또는 사용 이전이라도 의사소통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도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 특히 언어가 없을 때 다른 사람의 의사소통 의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의사소통 행동이나 그 행동의 결과,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의도를 추측할 수 있다. 또한 말을 하지 못해도 의사를 전달할 수는 있으므로 의사소통에서 말이 유일한 형태는 아니다. ⇒ 따라서 말의 발달 이전이라도 서로가 공유하고 인지하는 적절한 비언어적 의사소통 체계를 발달시킴으로써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언어행위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소의 말이 있거나 말이 없는 청각장애아동의 경우에도 다양한 형태로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끔 도울 수 있는 지도방법을 고안하여야만 한다. ⇒ 특히 어떤 아동은 끝내 말하기를 배우지 못하거나 기능적이 될 수 없는 느린 속도로 하게 되는데 이 같은 경우 의사소통을 위해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 체계나 도구가 필요하게 된다.
비음성적 언어체계의 역할	· 말이 아닌 다른 체계를 사용할 경우 그것이 하는 역할을 보면, ⇒ 첫째, 일차적인 의사소통 체계로 어느 정도까지는 음성형태로 대체된다. 따라서 음성적 의사소통을 사용하려고 학습하는 아동에게 잠정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며 이 경우의 목표는 비언어적 방법을 통해 정보를 전하는 것이다. - 둘째, 음성 및 말의 형성이나 명료도에 어려움이 있으나 일부 유용한 말이 있는 아동을 위해 음성적 의사소통의 보충으로 이용된다. - 셋째, 말의 명료도, 언어의 산출과 조직, 그리고 일반 의사소통 능력에 강조를 두면서 의사소통의 촉진제로서 사용된다.

〈보충 내용〉 2)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에 포함된다.	
(1) 수화	· 이 같은 대체 의사소통의 종류에는 크게 <u>수화, 의사소통 보조기</u> 등이 있다. ⇒ 먼저 수화는 처음에 농아를 위해 만들어졌으나 최근엔 심한 정신지체아와 자폐아를 위한 의사소통 보조로 이용되기도 한다. 수화는 손의 움직임과 위치를 통해 의사소통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데, <u>심한 장애아는 그들 환경의 기능적 요구에 관련되고 그들의 손 동작 운동 기술과 매치되는 개별적인 사인이 필요하다.</u> 수화의 신호는 시각적이어서 아동이 그것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지며 자신이 어떻게 그것을 형성하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언어 훈련과 달리 신호는 신체적 자극이나 조절을 사용하므로 아동이 배워서 사용할 수 있다. ⇒ 단점으로는 신체적 기민함이 필요하고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만이 서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 (장점) 그러나 이것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구어로 의사소통 기술을 발달시키지 못하는 아동을 위해 의사소통과 상징체계를 제공할 수 있다.
(2) 의사소통 보조기	⇒ 이것은 <u>그림, 상징이나 낱말을 나타내려고 사용하는 사물이며 의사소통 의도를 나타내려고 사용되는 상징과 원하는 상징을 선택하기 위한 테크닉으로 구성된다.</u> 이 도구가 의사 소통판이 되며, 여기에는 <u>가장 간단한 형태로 학교나 가정에서 흔히 활동, 일상 또는 사물을 의미하는 몇 개의 그림이 나타나는데 화장실 그림, 컵, 장난감, TV 등의 빈번히 사용되는 항목들이 표시되어 있다.</u>
교사의 역할	⇒ 이에 따라 아동의 언어 및 의사소통 발달에 영향을 주는 부모나 훈련자는 <u>아동발달의 전체적인 면을 항상 고려하여 자유롭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자발적으로 의사 소통하려는 기회를 제공하는 훈련상황을 제시해야만 한다.</u> 아동이 말이나 그 외에 어떤 방법으로든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통해 환경을 조절하며 생활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u>교사와 아동은 함께 소통에 참여하여 함께 배우고 발전하도록 힘써야 한다.</u>